

세계 속 보성차, 미래 천년을 열다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군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제9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세계속에 그린(Green) 보성차, 미래 천년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온택트로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개막식, 세계차품평대회, 쇼핑몰·비디오커머스, 온라인 수출상담회, 아름다운 BB콘서트, 보성차 랜선골든벨, 차밭 힐링요가&홈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한다.

첫날 개막식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오토라와 설하운의 축하공연으로 화려하게 시작을 알린다.

차엑스포 내일부터 3일간 온택트로 개최 30% 할인 판매...방송·유튜브로 생중계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미국, 홍콩 등 10개국 해외 바이어와 보성차생산자조합 등 차 관련 업체 10개소를 연계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차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둘째 날 세계차품평대회는 수제 녹차, 홍차, 황차, 블렌딩 차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8명의 차 전문 심사위원이 심사에 부분별 금·은·동상을 결정한다. 선정된 제품은 상장과 최

대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행사기간 동안 진행되는 보성차 30% 특별 할인 판매전에는 지역의 17개 업체가 참여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12개 업체가 참여한 홈쇼핑 방송이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방영된다.

보성차 랜선 골든벨은 3일부터 4일까지 줌 앱을 활용해 2회 차로 진행되며, 회차별 우승자에게는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이 상품으로 지급된다. 참가신

청은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누구나 가능하다.

보성세계차엑스포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스탬프 랠리는 행사 기간 방문한 온라인 출처 체크자 350여 명을 선정해 아이폰, 자전거, 녹차세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해 국내 최초 온택트 보성세계차엑스포에 6만 4,000여 명이 방문했다"며 "올해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역 특산물 판촉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 알리기 사업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여수, 아이스팩 재사용 업무협약 COP28 유치 기원 시민 실천 동참

COP28 유치 중심도시 여수시가 지난 달 31일 한국환경공단, 시민사회단체, 상인회 등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한국환경공단 송재식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을 비롯해 강용명 섬섬여수세계로 3대시민운동실천본부장, 김장현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조애숙 여수YWCA 회장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임재준 돌산갯길치생산자연협회장, 김상민(여수수산시장 회장 등 6개 수요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COP28 여수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실천을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인 상인회와 분리배출과 홍보 활동을 펼칠 시민사회단체, 직접 참여자인 도시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여수지부 등이 서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아이스팩 재사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여수형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실천운동으로 깨끗한 젤라틴 아이스팩을 수거박스에 내놓으면 누구나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다.

여수시는 아이스팩 수거함과 수거박스 설치 및 수집 운반 등 총괄 관리와 함께 읍·면·동을 통한 대대적인 수요처 발굴과 홍보에 힘을 예정이다.

여수시는 110개 공동주택 801개소에 아이스팩 수거박스 비치를 완료하고, 도시미화과와 읍·면·동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나서서 홍보물을 송가기와 집하장에 부착하며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쳤다.

권오봉 시장은 "여수형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은 매립·소각량을 감소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에 동참하게 되며, 소상공인들은 아이스팩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 중립 도시 실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파스텔걸스 위촉사진. /곡성군 제공

걸그룹 '파스텔걸스' 곡성 홍보대사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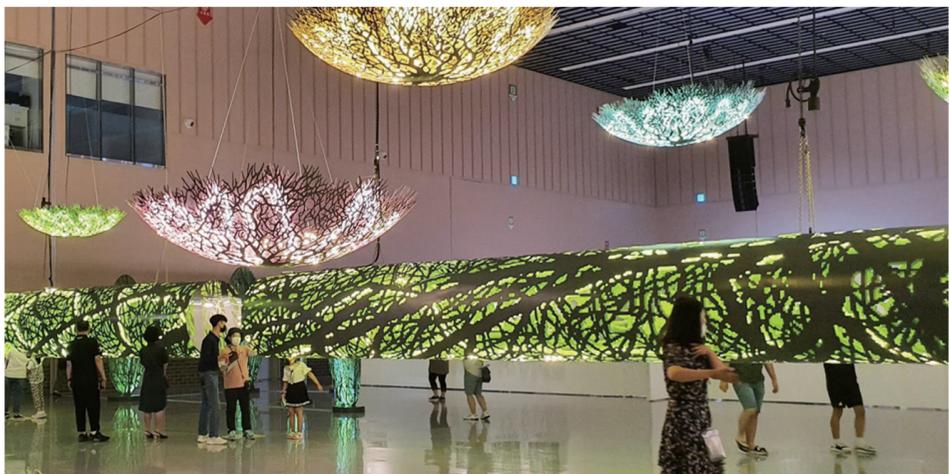
곡성군이 가수 파스텔걸스를 곡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파스텔걸스는 수민, 희빈, 소이, 다은, 도현 5명으로 구성된 신세대 퓨전 걸그룹으로 TV조선 미스트롯2에서 본선에 진출해 팀 미션곡 '손님온다'로 올 하트를 받고, 유튜브 조회 수 770만 뷰를 기록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8월 27일에는 케이팝과 국악을 접목한 흥겨운 댄스곡 '호녀 심정' 음원을 발매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호녀심정'의 뮤직비디오를 곡성에서 촬영한 것을 계기로 곡성군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이들은 곡성군 홍보대사로서 곡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인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특특위는 매력을 가진 파스텔걸스를 우리 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큰 영광이다"며 "앞으로 우리 군을 위한 활발한 홍보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차가운 철로 생태의 생명력을 표현한 권치규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 '대자연 네트워크'. /순천시 제공

순천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성료

신선·안전·고품격 전시행사 문화예술 모범사례 '호평'

순천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순천시와 함께 지난 달 20일부터 9일간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문화의 확장·생태만물상'이란 주제로 '한·중·일'과 '생태'를 기반으로 기술과 예술의 융합, 장르와 학제 간 융합, 역사·문화에서의 사공간의 융합 등 다채로운 융합적 요소를 구성해 선보였다.

특히 전시1관 지역작가 초대전 '순천의 역사와 미래'에서는 김만옥 작가의 동양화를 통해 순천의 역사와 옛 지형들을 감상할 수 있었으며, 장안순·한임수·위수환 작가들의 순천만의 멋진 풍광이 담긴 초연작들과 순천미협 50년사, 조강훈 아트스튜디오 기획 영상전은 지역작가들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전시2관 한·중·일 메인 작가 초대전 '생태 복원력'에서는 차가운 철로 생태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권치규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 '대자연 네트워크'를 전시해 대형 구조물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원근감 속에서 누구나 셀카를 찍는 진

풍경이 연출됐다. 천연광물질 석재를 물감 재료로 사용하는 안진의 교수의 작품 '꽃의 시간'은 여러 각도에서 달라지는 꽃 빛을 보여주는 등 한·중·일 초대 작가 10여 명이 생태 복원력의 이야기가 담긴 조각, 평면,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전시4관 동아시아 티(Tea)카니발 전시관에서는 돈황시 실크로드 차 교역로, 순천시의 옛 지명인 승주군의 야생차밭, 한·중·일을 관통하는 공통문화 코드인 차(Tea)를 주제로 이야기와 재미가 있는 전시라는 평을 받았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여수 현암도서관, 스마트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여수시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온 현암도서관의 내진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달 31일 재개관 했다.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 전창곤 여수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서관 운영위원,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36년 만의 변화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1985년 개관한 현암도서관에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해 열람 기능 중심이던 도서관에서 주민 친화형 '스마트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미디어갤러리 구축과 안내데스크 정보 시스템 도입, 전자 사물함과 전자 질판 설치 등을 마쳤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독서 콘텐츠 구비로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했다.

또한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소장자료 9만여 권의 도서 데이터를 전환하고 자가 대출 및 인반납 기계를 설치해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노트북·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스테디카페와 휴게실 등 어느 곳에서도 책을 읽고 편안하게 답사를 나누거나 쉬 수 있도록 개방형 도서관으로 변모했다.

재개관을 기념해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책 인형극, 작가 초청 강연회, 그림책 원화 전시회, 도서관으로 산책가자, 한옥에서 배우는 전통예절, 전래놀이 지도사 과정 등을 진행하며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 현암도서관이 레고방·영유아실·패밀리룸·스터디룸 등을 갖춘 스마트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여수시 제공

클릭! 고향 속으로



광양 금촌마을 이장, 취약계층 집터 잡초 제거

광양시 옥곡면은 금촌마을의 이현식 이장이 최근 취약계층의 집터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로 옥곡면이 지난 3월부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이날 대상자는 "그동안 몸이 아파 잡초 제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집이 깔끔해져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서정옥 옥곡면장은 "깨끗이 집터를 정리해준 이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이장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부인 이현식 금촌마을 이장과 최영숙 부녀회장은 지속적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에 흔쾌히 도움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보성 검백면,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

보성군 검백면 이장단협의회와 자율방범대가 "2050 탄소중립 생활 실천, 마을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태양광 LED 보안등은 낮 동안 태양 에너지를 충전해 밤에 자동으로 작동하기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탄소 저감을 위한 생활 실천에 효과적이다. 박우승 검백면 자율방범대장은 "지

역민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뿐만 아니라 태양광 보안등 설치 봉사를 통해 지구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삼열 검백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은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태양광 LED 보안등 설치사업을 필요한 곳에 확대·설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광양제철, 광양만권 자원순환 업무협약

광양제철소가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 ㈜호성티앤씨와 손잡고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양 산업현장과 선박에서 발생한 폐페트병을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 지속 가능한 광양만권 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양제철소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철소 현장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페트병을 수거해 분리하고, ㈜호성티앤씨는 폐페트병을 가공해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 김지우 광양제철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양만권의 ESG경영 실천과 실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포스코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